

우크라 영토와 안보 보장 맞바꾸나...백악관 회담 주목

트럼프 “중대한 진전”...위트코프 특사 “나토식 안보 보장, 푸틴도 동의”

美·유럽 병력, 우크라 주둔 현실화할까...WSJ “한국식 결과가 서방에 최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또 한 차례 중대 고비를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 참모들은 알래스카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이 결코 ‘빈손’이 아니었다고 17일 일제히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소셜트루스에 “러시아와 중대한 진전(BIG PROGRESS ON RUSSIA)”이 있다면서 “지켜봐 달라(STAY TUNED)”라고 썼다.

‘중대한 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트럼프 대

통령의 언급은 없었다.

대신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양보를 얻어냈다. 즉, 미국이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5조’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조항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위트코프 특사는 전했다.

동유럽으로의 나토 확장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나토식 집단 방위’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는 주장인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특히 아직 러시아군이 손에 넣지 못한 돈바스 내 전략적 요충지인 도네츠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철군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나토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토와 유사한 방식’의 집단 안보 보장 체제는 용인하는 거래가 미리 정상 간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권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즉석에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공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거부한 ‘즉각적인 휴전’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으로 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이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은 완전한 평화

합의”라면서 “검증 가능하고, 강제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수주, 수개월 동안 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토와 안보 보장을 맞바꾸는 거래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백악관 회담의 관건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준비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를 넘기는 데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국경은 힘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서방 병력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러시아가 정말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국가적 정체성을 바꿔 사실상

‘속국’ 내지 ‘보호령’으로 만들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애초 구상이었으나, 서방 병력의 주둔은 이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평화 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측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WSJ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우크라이나 전의 두 가지 결말을 예상하는 분석 기사에서 서방측에 최선의 결과는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서방측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국식 결말’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영국·프랑스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1953년 한국전쟁의 종결과 유사할 것이다. 반도를 분단된 상태로 남겼지만, 미군에 의해 그 이후 남한이 보호된 것”이라며 “푸틴에게는 한국식 결과가 역사적 실패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45도 폭염에 스페인·포르투갈 산불 확산일로...군 추가투입

산체스 총리 “날씨 우리편 아냐”

40도가 훌쩍 넘는 폭염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연일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20건 가량의 주요 산불이 계속 확산 중이다.

산불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이 폐쇄되고 철도 노선의 운영도 중단됐다.

스페인에서는 갈리시아, 레온, 아스투리아스, 엑스트레마두라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0년래 최악의 산불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지난주에만 스페인 전국에서 산불로 3명이 숨졌고 임야 11만5천ha 이상을 태웠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산불 진압에 투입된 군대 1천400명의 병력에 더해 추가로 500명을 전국에 추가로 긴급 투입해 소방대의 산불 진압을 지원하도록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주요 피해지역인 갈리시아 지방의 오우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전 세계를 황폐화하는 기후 비상사태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지고 있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오렌세 카르바예다 데 아비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주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 전역에서 수천ha가 불에 탄 가운데 최고 기온까지 높아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으며, 이베리아 반도에서 더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기후 비상사태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40도가 훌쩍 넘는 기록적인 수준의 폭염은 산불 진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17일 기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5도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앞으로 수일간 고비가 될 것 같으면서 “불행히도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스페인의 이웃 나라 포르투갈도 심각한 산불

로 고전 중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중부와 북부의 주요 산불 8건이 확산 중이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은 주요 관광지인 피우다우 지역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산불로 임야 14만5천ha 면적이 불에 탔는데, 이 중 절반이 지난 사흘간의 피해였다. /연합뉴스

BTS 뷔, 25일 LA 다저스 홈경기 시구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다음 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시구를 한다고 다저스 측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저스 구단은 이날 구단 소셜미디어(SNS)에 뷔의 사진을 올리고 “아미(ARMY), 준비됐나요? 뷔가 8월25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첫 시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구단 측이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해당 게시물은 약 2시간 만에 4만여회의 ‘좋아요’를 받았고, 2만6천여회 전파(리트윗)됐다.

뷔의 시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기의 티켓 예매 사이트는 방문자가 몰려 한때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뷔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지난 6월 군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달 초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년 봄 새 앨범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약 30분간 진행된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총재생 수는 730만회를 넘겼다.

한편 LA 다저스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잇달아 시구자로 초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단은 최근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이 오는 27일(현지시간)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시구한다고 지난 13일 공지한 바 있다.

뷔와 손흥민이 불과 이틀 차이로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에 올라 세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